



함즐함울 사진

시월, 가을하늘, 주님의교회

가만히 앉아 있어도 벅찬 시월, 알이 영근 밤같이 토실한 가을이 하나님의 나라처럼 영롱하다.
파란 하늘에 시월의 편지를 띄운다. 은혜 속에서 결실과 치유를 맞는 가을이 될 것임을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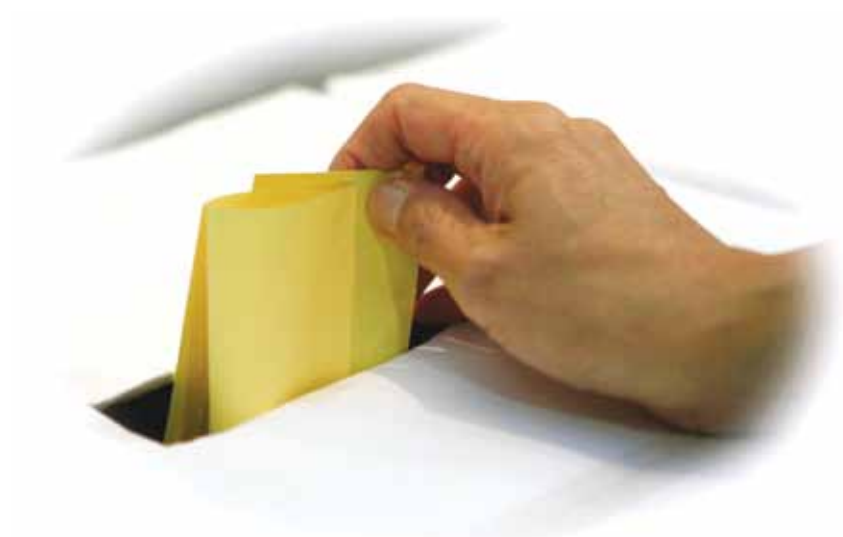
십자가 지고 헌신할 일꾼을 뽑는다

2013년 항존직 선거의 모든 것

2013년 항존직 선거가 10월6일과 10월13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항존직’이란 말 그대로 계속 그대로 있는 직분이며 우리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에서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말한다. ‘나를 버리고 하나님나라 위해 십자가를 지고 헌신할 일꾼을 뽑는 것’이 항존직 선거이다.

주님의교회에서는 매년 9월 항존직 피택 자격을 가진 성도들을 대상으로 교역자를 포함한 전체 항존직들로부터 예정 인원의 3배수로 후보자를 추천받아 당회에서 후보자를 2배수로 압축하는 공천투표를 하고 공동의회에서의 선거를 통해 2014



함즐함울 사진

년에 임직할 분들을 피택한다. ‘피택’이란 항존직 후보를 선거를 통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주일성수와 십일조 헌금을 잘 지키면서, 최근 2년 이상 교회 사역 활동과 겨자씨 모임에 참여하고, 12단계

성경공부 과정 가운데 3개 단계 이상 수료한 성도가 항존직 후보 추천의 대상이 된다. > 5면 도표 참조

후보자가 정해지면, 이 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가 바로 항존직 선거이다. 총회헌법에 의하면 당회가 후보자를 공동의회에 공천을 하도록 되어 있다. 당회에 공천권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항존직 추천이라는 절차를 더해 후보자를 정하고 있다. 주님의교회의 이러한 후보자 선정방법은 모든 성도들을 만족시키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최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5면으로

함즐함울

📖 쉽고 재미있는 기독교의 역사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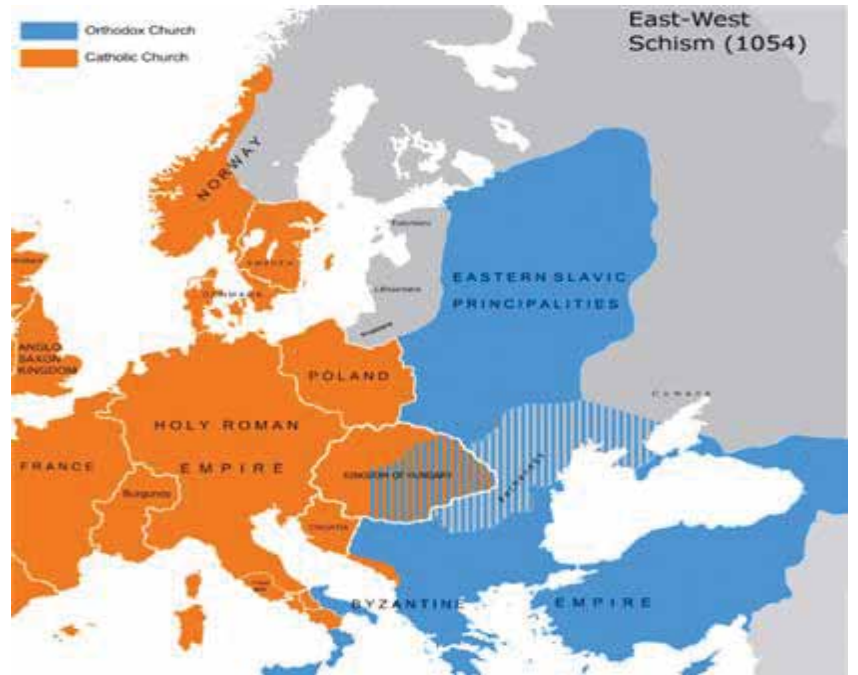
동서 교회 분열의 원인이 된 ‘필리오케 논쟁’

샤를마뉴 시대에 제기된 가장 큰 신학적인 쟁점은 동서 기독교간의 상이한 성령론 이해를 둘러싼 소위 ‘필리오케(Filioque)’ 논쟁이었다(809년). 381년 동서방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채택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Nicean-Constantinople Creed)는 초대교회의 신학적 전제인 삼위일체(Trinity)를 바탕으로 한 교리였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상 동일하다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가운데 특히 ‘성령’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해석이 샤를마뉴의 신학자들에 의해 시도되었던 것이다.

필리오케 논쟁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서방교회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의 대원칙에 따라서 성령의 기원을 고백할 때, ‘성부와 성자로부터(From the Father and the Son)’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동방교회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뉘앙스가 전혀 다른 ‘성부로부터 그리고 성자를 통하여(From the Father through the Son)’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성령의 기원에 관한 동서 교회의 다른 이해는 곧바로 동서교회가 각각 소속되어 있는 비잔틴 제국(동방교회)과 프랑크 제국(서방교회)의 갈등으로 비화되었다. 예를 들면, 성령이 ‘성자로부터(And from the Son: Filioque)’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서방교회 지도자들은 동방교회의 ‘성자를 통해서’ 왔다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정통교

리와 상이하다고 주장하였다.

성령론을 둘러싼 동서교회의 갈등은 809년 아헨(Aachen)에서 열린 종교회의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프랑크 왕국에 소속되어 있던 서방교회의 지도자들이 헬라전통을 따르는 동방교회의 성령론을 이단적 교리라고 파문을 결정함으로써 동서교회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결국 이 논쟁은 867년에 일어난 ‘동서방교회 분열’의 결정적인 동기를 제공하였다. 867년의 분열과 1054년의 대분열은 다른 사건이다. 867년의 분열을 표현할 때 ‘동서교회의 분열’이란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샤를마뉴에 의한 동서교회의 분열’이다. 서방교회를 대표하던 레오 3세 역시 ‘필리오케’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 신학적인 문제가 있음을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결국 성령론에 대한 신학적 입장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1054년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인 미카일 케룰라리우스가 이끈 동방교회와 교황 레오 9세가 이끈 서방교회 사이에 최종적인 ‘동서교회 대분열’(The Great Schism of 1054)을 가져오고 말았다. 이때부터 동서교회간에는 성령에 대한 관점이 매우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유럽의 기독교와 동방교회(Eastern Orthodox Church)의 신학적 견해차로 남아 있다. 결국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라틴어를 사용하는 서유럽의 서방교회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바탕으로 성



1054년 동서 교회 분열 당시의 유럽

령을 이해한 반면,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헬라어로 사용하는 동방교회는 카파도기안 신학자들의 성령이해를 받아들인 것이다.

카파도기안 신학자들의 견해, 즉 동방 기독교의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출발점은 성삼위가 모두 한 본체이며, 그 본체의 주체는 바로 성부라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은 오직 ‘성부에 의해서(From the Father)’만 우리에게 오시고, 성자는 덜 중요한 위치(Through the Son)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라틴 계통의 서방교회의 신학자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영향을 받아, 성령을 성부와 성자를 연합하는 것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로부터(From the Father and the Son)’라는 성부

와 성자가 병렬되는 표현이 사용된 것이다.

이처럼 미묘한 문구해석을 둘러싼 성령론을 두고 일어났던 동서방교회의 분열은 피할 수 있었던 교회의 분열이었다. 신성로마제국을 명실상부한 기독교 제국으로 만들고자 했던 샤를마뉴의 정치적 개입으로 인하여 벌어졌던 ‘필리오케’ 논쟁은 동서교회의 분열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 논쟁을 겪은 동서방교회는 문제의 미묘함을 인정하면서 필요 없는 장래의 잡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충적인 내용을 담은 새로운 신조를 채택하였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사도신경(The Apostles’ Creed)’이다. **이강찬 목사**

📖 성경 - 한자로 풀어보기 49

士師記(사사기 Judges)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라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사사기 3:7-8)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

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사사기 3:9)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가나안 정복 이후부터 왕국시대 이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도자들이다. 이들은 일정지역을 관할하면서 평시에는 정치지도자로 전시에는 군사지도자로 활약하였다. 士師(사사)는 재판관(judge)이란 의미로

원래는 소송과 분쟁을 해결하는 자를 가리킨다.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士(선비 사) : “많다. 완전하다”의 뜻을 지닌 十(열 십)에 “모으다”를 의미하는 一(한 일)이 결합되어 <많고 완전한 지식을 모으는 자가 선비이다>라는 문자가 만들어졌다. 고대에는 도끼를 손에 쥔 무사의 모습이었으나 후대에 문무를 겸한 지도자가 되었다.

★師(스승 사) : 自(쌓일 퇴)와 市(둘릴 잡)의 합자로 <많은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자가 스승이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記(기록할 기) : “말하다. 분명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言(말씀 언)에 “나. 자기”를 뜻하는 己(몸 기)를 합쳐 <말의 분명한 의미를 남기기 위하여 내가 글로써 기록한다>라는 문자가 되었다. **함줄함줄**

☞ 교계소식

담임목사 세습금지 제도화 확산 _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98회 총회에서 결의

교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담임목사 세습금지에 대한, 자정 차원에서의 교계의 제도화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9월 12일, 이번 총회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던 담임목사 대물림 금지가 전격 결의되었고,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목회의 대물림, 곧 담임하고 있는 교회를 목회자인 자녀에게 물려주는 행위는 비단 교회 내부에서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부정적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비복음적인 문제로 지탄받아 왔다.

“**교회 세습은 한국교회가 사회의 걱정과 지탄을 자초한 큰 문제.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이삭을 죽여야 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야**

격론 끝에 압도적으로 가결

한국 개신교의 주요 교단 중 하나인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예장통합, 총회장 김동엽 목사)는 12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명성교회에서 열린 제98회 총회의 마지막 날, ‘교회 세습’에 대한 찬반을 안건으로 올렸다. 찬반 격론

끝에 재적 1033명 가운데, 교회세습 반대 870표, 현행대로에 81표가 나오면서 세습금지가 가결되었다. 총회에서는 이 결의에 따라 ‘담임목사 대물림 금지’에 대한 후속조치로 그에 따르는 법조문의 개정을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이 결의 자체는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여러 교계 신문들 뿐 아니라 신문, 방송, 통신 등 주요 언론매체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이 소식을 보도했다.

이에 앞서, 예장통합 교단 산하 서울노회와 평양노회 등 9개 노회에서 세습금지를 현의한 바 있다. 이들이 올린 현의안은 “부모가 담임목사,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

그러나 총회가 개최되기 전부터 많

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세습금지’건이 결의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다.

투표 전에 시행된 토론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었다. 찬성 쪽에서는 오랫동안 세상의 빛이며 사회의 소금 역할을 했던 한국 교회가 오늘날 대형화와 함께 세습 문제로 사회로부터 오히려 걱정을 받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세습 문제는 교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며, 예장통합이 이 결의를 통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또한 교회는 이삭을 죽여야 했던 아브라함을 기억해야 하며, 세습은 영적 근친상간과 같은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한편 반대 쪽에서는, 교회법을 근거로 볼 때, 세습금지와 같은 교역자 청빙문제는 당회의 고유 권한으로, 목회자 청빙과정에 참여하는 평신도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

을 내세웠다. 한편, 법률적인 검토를 위해 헌법위원회가 시간을 두고 연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기도 했다.

다른 교단에도 큰 영향 미칠 듯

예장통합은 8,300여 교회와 280여만 신도로 구성되었으며, 한국 개신교의 전통과 역사를 이끈 새문안교회·연동교회·영락교회 등 주요 교회들이 소속해 있는 교단으로, 주님의교회도 이 교단에 속해 있다.

지난해 8월 교계 처음으로 기독교 대한감리회(감리교)에서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장정(감리교 교회법)의 개정안을 확정하여 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이후, 교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교회 세습’에 대한 예장통합의 이번 결의는 개신교의 다른 교단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함글함글

교회용어, 이것만은 고치자 > 기도 용어 편 3

참 좋으신 하나님(X):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O)

기도 서두에 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수식어를 흔히 붙인다. 성경에는 ‘거룩하신’, ‘만유의’, ‘생명의’, ‘신실하신’, ‘의로우신’, ‘자비하신’, ‘영원하신’, ‘진실하신’, ‘은혜로우신’, ‘천지를 지으신’... 등과 같은 말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수식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보편적 속성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그런데 ‘참 좋으신’은 하나님의 속성을 나의 주관적인 감정, 정서에 비추어 표현한 말이다. 우리가 자신의 알팍한 주관적인 감정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과장하여 발전시킨다면 ‘사랑스러운 하나님’(사랑의 하나님)과는 판이한 뜻이 된다., ‘미운 하나님’, ‘야속한 하나님’ 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X): 사용 불가

기도하는 중에 흔히 사용하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쓰지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영원히 존재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도 살아있다’는 표현은 ‘언젠가는 살아있지 못할지 모른다’ 또는 ‘아직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등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극히 제한하는 표현이 된다.

중보기도(X): 중보적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O)

기독교에서 ‘중보’라는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하는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단 한 분의 중보자이시다(딤후 2:5). 그러므로 그 밖의 다른 사람에게 이 말을 사용하는 것은 성경의 내용과 다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중보자셨고(요 1:3, 10; 골 1:16; 히 1:2), 십자가를 통해 이를 극적으로 보여주셨으며, 지금도 예수님의 중보는 계속되고 있다(눅 22:69; 골 3:1; 히 12:2). 그러므로 ‘중보기도’라는 말은 우리가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며, ‘이웃을 위한 기도’, ‘중보적 기도’라는 표현이 바람직하다. 중보적 기도는 중보자의 기도(중보기도)와는 다른, ‘나’ 아닌 ‘남’을 위한 기도를 뜻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자료 / 함글함글 정리

나를 일으킨 한 마디 2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이다”

가정이 어려워져서 실업계 고교를 다니면서, 한창 예민한 청소년기를 우울하게 보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진학에 대한 꿈을 버릴 수는 없었다. 몇 년 뒤 원서를 냈지만, 공부를 제대로 못한 채 시험 한 달 전을 맞았다. 그때 어느 책에서 이 구절을 발견했다. “한번 해 보자!” 독한 마음으로 하루에 한 과목씩을 공부했고,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 익명의 집사

> “나를 일으킨 한 마디”는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이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던 누군가의 말, 구절을 함께 나누는 공간입니다. 익명도 가능합니다.

메일주소 : hamletter@hanmail.net

2013 비전트립 현장 보고서_청년부

베트남, 기도로 함께한 사랑의 축제

선교훈련, 그리고 출발

이번 훈련에는 2명의 교역자와 15명의 청년이 모여서 선교를 준비하였습니다. 4월부터 모집을 시작하였고,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집중적인 선교준비 훈련을 하였습니다. 매번 모임마다 지역연구와 기도회를 통해 베트남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9월 17일(화)에 드디어 베트남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인민위원회 방문

단기팀이 베트남의 빈롱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단기팀은 빈롱 인민위원회를 방문하여 현지 공무원들과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여러해 사역이 지속되어서인지, 우리팀에 호의적이며 깊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방문하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서도 전해지고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월병 나눔 행사

단기팀의 사역기간은 한국에서는 추석으로 보냅니다. 베트남 현지에서도 추석으로 보내는데, 추석기간에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대대적으로 열립니다. 단기팀은 학교에서 열리는 어린이 행사에 참여하여서 준비한 공연(위십, 드라마)을 보여주며 월병(과자의 일종) 나눔에도 참여했습니다.



집짓기 사역과 헌정식

이번 선교 기간 동안에는 빈롱 지역의 네 가정을 섬겼습니다.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집짓기 사역을 도왔으며, 교회의 지원금을 통해 각 가정에는 한 마리의 소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지체들은 집을 지으며, 이 가정에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학교 방문 및 성경학교

빈롱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센터학습을 진행했으며, 준비한 공연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역사 문화 탐방

빈롱지역에서 사역을 마친 후 호치민 시에 올라왔습니다. 호치민에서 전쟁·역사 박물관을 방문해서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시내를 돌아보며 베트남의 생활상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선교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며 베트남을 마음에 더욱 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귀국, 삶으로의 선교

9월 22일(주일)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단기선교팀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베트남을 마음껏 섬기며 돌아왔습니다. 우리모두에게 단기선교의 경험은 잊지 못할 은혜가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단기선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어져 갈 것입니다.

김삼열 전도사



> 1면에서

항존직 선거 10문 10답

1. 항존직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자격을 알고 싶어요.

아래 도표를 참조하십시오.

	장 로	권 사	안수집사
나 이	40-65세	30-70세	30-70세
재적(등록)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수세(입교)후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이상
자격(총회규정)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된 자 (총회헌법 제40조)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된 여자로서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 (총회헌법제53조)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30세 이상된 남자로서 디모데전서 3장 8-10절에 해당하는 자 (총회헌법 제51조)
공통사항	주일성수와 십일조 헌금을 잘 지키는 자로서 1. 최근 2년 이상 교회사역 활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2. 겨자씨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자. 3. 12단계 성경공부 과정 중 3개 단계 이상 수료한 자.		

2. 선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10월6일(주일) 1부 예배 후 공동의회 회의 개최 후 8:30-15:30까지 1차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합니다. 이 때 장로 후보자는 총투표수의 2/3 이상을, 권사와 안수집사 후보자는 총투표수의 1/2 이상을 득표한 분이 피택자가 됩니다. 투표 결과는 10월 9일 수요일 예배 후 발표되며, 피택자가 예정 인원 미달될 경우, 10월 13일(주일) 2차 투표를 실시합니다. 2차 투표에서는 1차 투표에서 피택된 인원을 제외한 남은 예정인원의 1.5배로 후보자를 줄입니다. 이 투표와 최종 결과는 10월19일 수요일 예배 후 발표되며, 그 때 공동의회도 종료됩니다.

3. 금년에는 몇 명을 피택할 예정인가요? 금년 선거에서는 장로 10인, 권사 20인, 그리고 안수집사 20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정 인원은 교회의 목회방향을 감안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당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4. 선거에 의해 피택이 된 후보자는 바로 항존직이 되나요? 아닙니다. 피택된 분들은 1년의 기간 동안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다음 해 창립기념일에 임직이 됩니다. 장로피택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부여하는 장로고시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임직이란 목사와 장로의 안수를 통하여 항존직으로 취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5. 투표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우리 교회에 등록된 지 1년이 경과한 만 18세 이상의 세례교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투표참가 자격자의 명단은 교회로비에 전시된 바 있습니다. 선거의 참여는 성도의 거룩한 권리의자 의무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나라 위한 알곡공동체로 가꾸기 위해 위 자격을 가진 모든 성도는 기도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6. 12단계 성경공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교회홈피를 통하여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문의: 김정형 목사(010-2998-0020)

7. 겨자씨와 사역활동에는 어떻게 참여하나요? 교구목사가 겨자씨를 편성하고 겨자씨 인도자나 권찰이 연락을 합니다. 혹 연락이 되지 않거나 비활성화된 겨자씨에 편성된 성도님들은 교구목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사역활동은 교회로비의 안내 창구나 교회사무실 혹은 장로 기타 봉사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8. 선거는 공정하게 관리되나요? 공정하고 은혜로운 선거관리를 위하여 당회에서는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장로와 담당목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아주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항존직에 의한 추천과정에서부터, 당회원의 공천투표, 그리고 공동의회 회의의 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불편부당하게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하며 모든 의사를 선거관리위원회 안에서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9.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9월1일 항존직 추천 이후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후보자가 제시한 소정양식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나, 교인으로서 은혜롭지 않은 행위를 후보자가 하는 경우, 당회와 협의를 거쳐 경고하거나 후보자의 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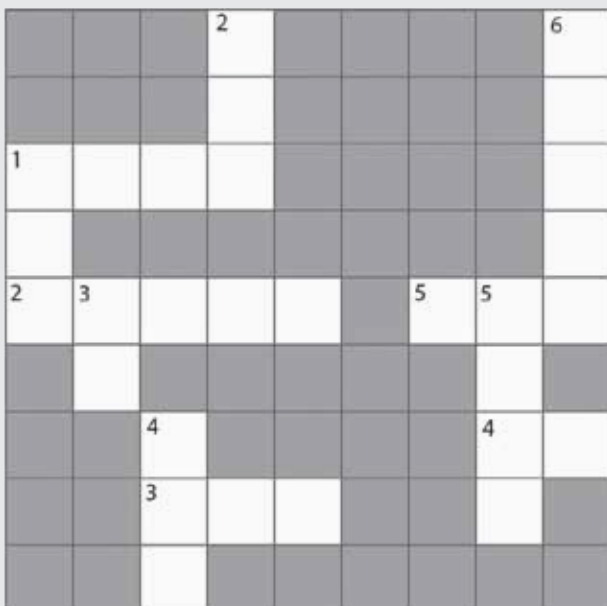
10. 직분에 대하여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항존직 직분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계급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귀한 은혜의 직분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사양할 직분도 또한 아닙니다. 직분의 감당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므로 겸손하게 준비하며 부르심이 있을 때 바로 응답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항존직 후보자 정정 공고

9월 29일 배포된 2013년 항존직 신고 공고, 권사후보자 38번 이혜정 집사 봉사경력사항 중 "2012~현재: 시온찬양대"를 "2001~현재: 시온찬양대"로 정정합니다.

주님의교회 선거관리위원회

말씀따라 가로세로 _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편



- 가로** 1.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예언했던 선지자는?
2. 에스더를 왕후로 삼았던 바사의 왕은?
3. 처음 성전재건을 시작할 때 성전공사의 감독을 맡았던 사람들은?
4.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손이 농임을 받을 당시 그들을 지배했던 나라는?
5. 느헤미야보다 조금 앞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다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제사장이자 율법학자는?

- 세로** 1.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손 중 농임을 받은 자들이 귀향할 때 함께 했던 제사장은?
2. 느헤미야가 성곽재건을 할 때 방해했던 암몬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 뜰에 방을 만드는 악한 일도 저질렀던 사람은?
3. 모르드개를 비롯한 유다민족을 모두 멸하고자 모략을 썼던 사람은?
4. 파괴된 성전건축을 위해 유다백성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던 바사의 왕은?
5.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자들의 자손 중 농임을 받은 자들이 귀향할 때 유다인들을 이끌었던 사람은?
6.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곽을 재건하도록 허락한 왕은?

지난호 정답 - 가로 1.여호야긴 2.아베스 3.헤브론 4.모리아산 5.에레미야 6.요아스 7.미가야 - 세로 1.아간 2.스바여왕 3.기브온산당 4.고레스 5.히스기야 6.요시아 7.보아스

부르심의 길에 서서

“이제 가라, 할 말을 가르치리라”



저는 3대째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종의 길로 갈 수 있었던 것도 다 부모님, 할머니의 신앙과 기도덕분입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은 6학년 여름 성경학교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마음가운데 다가왔고, 죄인인 날 위해 대신 희생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2시간동안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는 저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가를 생각하며 비전을 찾는 중에 찬양선교에 대한 열정을 갖고 성악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슨을 시작하고 몇 달이 되지 않아 갑자기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목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지만 병명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찬양선교의 비전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일한 다고 선택한 길이 막히자 좌절과 원망이 앞섰습니다. 그 후에 교회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 앞에 나서서 이야기하는 것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 그건 저의 길이 아니라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3번이나 똑같은 성경본문(출애굽기 4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들려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출4:12)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후로 20여년 가까이 사역자의 길을 걸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사역자의 길을 걸어오면서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간 신학교에서 이승만 교수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화해사역의 비전을 품고 일하시는 목사님이시며 교수님은 학생들을 부모님 같이 돌보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를 해주시는 멘토이십니다. 지금도 그분의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헌신을 본받아 살고자 제 삶에 도전하며, 사람들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돌보며 위로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역자 되길 기도합니다.

이혜경 목사 /아기정원 담당

교회신문에게도 영혼이 있다면

물불을 두려워않고 취재하는 용기와
어떤 오탈자에도 상처받지 않는 강인함,
주님처럼 죄 지은 자를 감싸 안는 따뜻함을 가졌을 것입니다.
단언컨대, 함글함글은 가장 완벽한 교회신문입니다.

다만, 예배시간에는 읽지 않으신다는 전제에서요.

교회 단신

호스피스팀 코이노니아 대회 참석



주님의교회 호스피스팀 자원봉사자 20여 명은 9월 28일, 각당 복지재단 주최 제 1회 자원봉사자 코이노니아 대회에 참석했다. 봉사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경험한 내용들을 간증을 통해서 서로 나누고, 준비된 연극과 귀한 공연도 함께 보면서, 그동안의 수고를 은혜 속에서 위로받고 재충전하는 기회를 가졌다. **함글함글**

미술팀, 하남비전교회 모자이크 벽화 제작



미술팀에서는 9월 들어 주한외국인선교팀이 돕고 있는 하남비전교회 아이들과 함께 공동 작품으로 모자이크 벽화를 제작했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포함해 여러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밑그림 위에 여러 모양의 단추를 함께 의논하며 붙여 만든 이 작품은 하남 비전교회에 전시될 예정이다. **함글함글**

교회사역일정

항존직 선거일정 10/6 (주일): 1차 항존직 선거

10/13(주일): 2차 항존직 선거

10. 6. (주일): 공동의회

10. 6. (주일)~ 20(주일): 10기 결혼 예비 학교

10. 11. (금)~12(토): 정책당회

10. 13. (주일): 정기 당회

10. 16. (수): 3/4분기 제직회

10. 20. (주일): 추수감사주일

10. 21. (월): 제179회 평양 노회

10. 27. (주일): 종교개혁주일, 입교 세례식